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기반 구축 나서

시,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클러스터 구축·인력 양성 등 총력

전주시가 최근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특화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특히 전북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연구시설, 기업 등을 연계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공을 들인다.

시는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다. 이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



전주시는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력단은 지역 주도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주요 시설 및 공간 배치, 전주시 헬스케어 산업 수

요 조사 및 기업 유치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향후 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전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북대와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연구시설과 기업 등을 유치해 전북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주변 의료기관을 포함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뿌리가 될 인력 양성에도 공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이번 연구용역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기반을 차근차근 강화해 유망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미안마 입국 유학생들과 두번째 간담회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장실에서 전주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미안마 입국 유학생 9명과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 확산 '맞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GS리테일 호남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내 GS편의점과 자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GS리테일 호남본부는 25일 전주시혁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박태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홍경택 GS리테일 호남본부 전북영업6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GS편의점을 '생명안심 편의점'으로 지정하고 경영주와 종사자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자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경우 즉시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GS편의점 서곡 미라클점

의 장은지 스토어매니저는 지난 19일 반개탄을 찾다 소주와 청데이프를 구매한 2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기지를 발휘해 막아 전북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박태원 센터장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고객의 생명을 구한 아름다운 사례를 바탕으로 GS리테일 호남본부가 자살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전주시역 내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됐다"며 "전주시에 있는 GS편의점 전체가 생명안심 편의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GS편의점 경영주와 종사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전주시민에게 생명사랑 의식을 전파해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강위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양기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우수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전주한지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한지문화확산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마케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한지를 활용한 농수산물 친환경 포장재 연구 및 개발 등 기술적·문화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자 진행됐다.

전당은 과거부터 전주산 다펀수매 사업, 전주한지장 아카이브 구축 사업, 전통한지 보급화 사업, 전주 손한지 판매장 오픈 등을 통해 전주한지 보급에 힘써왔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에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전주시, 총사업비 30억원 투입 전주한벽문화관 야외마당에

전주한옥마을에 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이 생겼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전주한벽문화관 야외마당에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을 건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마당창극이 펼쳐졌던 전주한벽문화관 야외마당의 경우 관람석

의 높이 단차가 없어 관객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전통혼례 행사가 결철 때에는 자유로운 연습이 불가능해 전용 야외공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1년여 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은 무대와 각종 조명·음향장치, 264석 규모의 관람

석이 설치했으며, 배우 등 출연진을 위한 대기실과 분장실, 연습실 등도 갖춰졌다.

시는 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이 조성됨에 따라 관객의 시야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품격 높은 마당창극 관람 환경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그간 추진돼왔던 '천하행인이 눈을 떠다', '변사또 생일 잔치', '진짜 진짜 응고집' 등 마당창극을 전주를 대표하는 공연 브랜드로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의 완공으로 전주한옥마을을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마당창극 전용 공연장이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조성된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에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 난 토끼 아니오'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유관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25일 인후동 복일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복일초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전방주의 의무 준수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각종 홍보용품과 리플릿

을 배부했다.

등교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 녹색어머니회와 완산·덕진 모범운전자회는 향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111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21대, 신호기 8대를 설치하고 15곳의 통학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과속 단속카메라 30대와 신호기 3대를 설치했으며, 노상주차장 5곳을 폐지하고 통학로 1개소를 개설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